통계연구보고서

한국과 미국의 속보성 경제지표 비교 연구

2004. 12.

<마크> 통 계 청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2004년도 연구과제인「한국과 미국의 속보성 경제지표 비교 연구」의 연구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년 12월

통계연구과장 최 봉 호

연 구 자 : 박 소 현
최 정 수

요 약 문

과 제 명	한국과 미국의 속보성 경제지표 비교연구		
중심단어	경제지표, 작성방법, 종류, 접근 용이성		
연구기관	통계기획국 통계연구과	연 구 자	박소현, 최정수
연구기간	2004. 7. ~ 2004. 9.(3개월)		

우리나라 경제지표와 관련하여 경제지표 종류의 부족과 발표시점이 월말에 집중되어 있어 월중 경제동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적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경제지표들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경제지표들과 비교하여 개선사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비교대상은 발표주기가 월간단위 이하이며 비금융부문 경제지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교대상 지표의 선정은 미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표를 기준으로 이들 지표에 대응하는 유사한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분석 방법은 지표의 작성여부, 작성방법, 통계표 내용, 지표에 대한 접근 용이성의 정도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과 비교해서 경제지표의 종류가 부족한 편은 아니지만 고용, 재고, 소득, 부동산 부문에 대한 통계 개발이 필요하며, 지표에 대한 접근용이성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경제지표 작성방법에 있어서도 통계작성단위, 계절조정, 포괄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통계표에 수록된 내용들도 미국은 cross table 작성이나 다양한 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표들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위와 같이 연구결과 발견된 문제점들을 우리나라 각 통계작성기관이 해결할 수 있도록 통계청은 다른 통계기관과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우리나라 통계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속보성 경제지표의 선정기준 ····· 2

제3장 한국과 미국의 속보성 경제지표 비교 ····· 6

제1절 경제부문별 지표종류 및 발표시점 ····· 6
제2절 경제지표의 접근 용이성 비교 ····· 7

제4장 주요 경제지표별 작성방법 비교 ····· 12

제 1절 물가 ····· 12
제 2절 고용 및 임금 ····· 13
제 3절 소득 및 소비 ····· 17
제 4절 소비자전망 ····· 18
제 5절 건설 및 부동산 ····· 20
제 6절 경기종합지수 ····· 23
제 7절 제조업동향 ····· 25
제 8절 비제조업동향 ····· 28
제 9절 재정 ····· 30
제10절 무역 ····· 30
제11절 경기전망 ····· 31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 33

표 목 차

<표1> 한국과 미국의 속보성 경제지표 비교 ····· 3
<표2> 한국과 미국의 경제지표 접근 용이성 비교 ····· 9
<표3>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전망조사 비교 ····· 19
<표4> ECRI 발표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종류 ····· 24
<표5> ECRI가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는 국가 ····· 25
<표6> 각 기관별 경기종합지수 작성에 사용하는 경제지표 ····· 26
<표7> 월별 생산지수작성에 이용되는 자료 형태 ····· 28

제 1장 서론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기대와 달리 경기침체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필요한 경제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제지표에 대한 수요가 정책관련기관, 연구기관 및 언론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지표의 문제점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을 통해 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경제지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을 살펴보면 다양한 경제지표의 부족과 발표시점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다. 한국일보의 2004년 7월 8일자 기사를 요약해보면 “미국의 경기통계는 한달내내 끊임없이 발표되지만, 우리나라는 월말에 몰려 있어 월말이후부터 다음달 월말까지 시장은 사실상 경기판단의 공백상태” 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내일신문의 2004년 7월 28일자 기사를 요약해보면 “우리나라는 쓸만한 경기지표가 일주일에 잘해야 1~2건 정도 나오지만, 미국은 하루 평균 1~2건 이상의 통계가 발표되어 질적 차이를 떠나 양적으로도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지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다양한 경제지표의 부족과 발표시점에 대해서 금융부문은 제외하고 실물부문 중심으로 물가, 경기 등 11개 경제부문별로 세분하여 각 경제부문별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지표들을 비교, 분석하여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우리나라가 개발해야 할 경제지표들이 무엇인지 찾는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작성되고 있는 경제지표들과 미국의 해당 경제지표에 대해서 조사항목, 작성방법, 발표주기, 그리고 자료의 제공방법 등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경제지표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각 경제지표들의 개선 사항을 분석한다.

제 2장 속보성(速報性) 경제지표의 선정기준

경제지표의 발표주기는 1일, 주간, 순기, 월간, 분기, 연간 등 다양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언론에서 제기한 “미국은 한달내내 끊임없이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있다”는 내용을 고려하여 발표주기가 월 단위 이하(월간, 주간, 순기, 일일 등)인 지표만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대상을 속보성 경제지표라고 정의하였다. 속보성이라 함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월간단위에 비해서 주간단위의 발표주기가 더 속보성이 있지만, 경제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경기에 대한 단기 전망을 위해 사용하는 통계자료들이 속보성의 특징을 갖는 지표라 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월간단위 이하 지표들이 이런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속보성 경제지표는 미국의 속보성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이들 지표에 대응하는 유사한 지표들을 선정하였는데, 미국은 11개 경제부문에서 39개의 경제지표가 선정되었고, 한국은 10개 경제부문에서 33개 경제지표가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은『소득 및 소비부문』에 대한 월간단위의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있지 않아 10개 부문에서만 경제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경제부문별 한국과 미국의 경제지표에 대한 자세한 비교는 <표1>과 같다.

미국의 속보성 경제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미국 FRB(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에서 발간하는 The Beige Book[1)2)],

1) 연간 8회 발간되는 미국경제에 대한 분석보고서로 FRB가 미국 금리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들도 이 보고서의 발간시점과 내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2) The Beige Book은 미국 전체와 12개 구역별로(district) 경제동향을 분석하는데, 미국전체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이 7개 경제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며, 통계수치를 직접 인용하지는 않고 확장, 성장, 완만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경제부문	인용되는 경제지표
소비자지출	소매판매, 소매업자의 판매전망
제조업 및 기타기업동향	제조업동향, 서비스업동향
부동산 및 건설	주거용부동산동향, 상업용부동산동향, 비거주용건설동향
금융	대출동향, 주택저당수요, 리파이낸싱동향, 대출기준
농업	기상조건, 농산품수요, 가격, 수출동향
자연자원산업	광업및에너지부문동향, 원유와가스굴착장치대수, 원유및가스시추동향
노동시장, 임금, 물가	고용, 신규시설 및 확장, 소비자물가, 원재료 물가

<표1> 한국과 미국의 속보성 경제지표 비교

부문	한국				미국			
	명칭	작성기관	발표시점	주기	명칭	작성기관	발표시점	주기
1.물가	1.소비자 물가지수	통계청	익월 1~5	월간	1.Consumer Price Index	노동통계국 (BLS)	익월 14~19	월간
	2.생산자 물가지수 (가공단계별)	한국은행	익월 3~6 (익월17~20)	월간	2.Producer Price Indexes	노동통계국 (BLS)	익월 10~18	월간
	3.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	익월 10~14	월간	3.U.S. Import and Export Price Indexes	노동통계국 (BLS)	익월 7~14	월간
	4.농가판매 가격지수 농가구입 가격지수	농협 중앙회	익익월 10	월간	4.Agricultural Price	농무성	금월 27~30	월간
2.고용 임금	1.경제활동인구	통계청	익월 11~20	월간	1.The Employment Situation	노동통계국 (BLS)	익월 2~9	월간
	2.매월노동통계 조사	노동부	익익월 말	월간	2.Real Earning		익월 14~20	월간
					3.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익 익 월 11	월간
	3.고용보험통계	한국산업 인력공단 중앙고용 정보원	익월말	월간	4.Jobless Claims	노동성	매주 목요일	주간
					5.Mass Layoffs	노동통계국 (BLS)	익월 22	월간
					6.ChallengerJob-Cut Report	Challenger, Gray and Christmas	익월 1~7	월간
					7.Help Wanted Index	The Conference Board	익월 24~30	월간
3.소득 소비					1.Personal Income and Outlays	경제분석국 (BEA)	익월 23~ 익익월 3	월간
4.소비 자전망	1.소비자전망조사	통계청	익월 5~12	월간	1.Consumer Confidence	The Conference Board	금월 23~30	월간
	2.소비자동향조사	한국은행	말월 19~31	분기	2.Consumer Sentiment (잠정치) (확정치)	미시간대학	금월 10~17 금월 25~	월간
	3.소비자태도조사	삼성경제 연구소	중간월	분기				
5.건설 부동산	1.건설기성액	통계청	익월 27~ 익익월 4	월간	1.Value of Construction Put in Place	센서스국	익익월 1~5	월간
	2.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건교부	익월 24~30	월간	2.New Residential Construction(Housing Permits, Building Starts and Housing Completions)	센서스국	익월 16~21	월간
	3.주택건설 실적통계	건교부	불규칙	월간				
	4.미분양주택 현황보고	건교부	불규칙	월간	3.New Residential Sales(New One-Family Houses Sold and For Sale)	센서스국	익월 23~28	월간
	5.주택가격 동향조사	국민은행	익월 9~10	월간				
	6.주간아파트 가격동향	국민은행	매주 금요일	주간	4.Existing Home Sales	전국부동산 협회	익월 23~29	월간
					5.MBA Purchase Application	모기지은행 연합회	매주 수요일	주간

부문	한국				미국			
	명칭	작성기관	발표시점	주기	명칭	작성기관	발표시점	주기
6.경기종합지수	1.경기종합지수	통계청	익월 27~익익월 4	월간	1.Leading Indicators 2.Cyclical Outlook	TCB ECRI	익월 17~23	월간 월간
7.제조업동향	1.산업생산지수 2.제조업가동률지수	통계청	익월 27~익익월 4	월간	1.Industrial Production and Capacity Utilization	FRB	익월 14~17	월간
	3.생산자출하지수 4.생산자제품재고지수 5.기계수주액	통계청	익월 27~익익월 4	월간	2.Advance Report on Durable Goods Manufactures' Shipments and Orders 3.Manufacturer's Shipment, Inventories and Orders	센서스국	익월 23~28 익월 31~익익월 6	월간 월간
					4.Manufacturing and Trade: Inventories and Sales	센서스국	익익월 12~15	월간
8.비제조업동향	1.도소매판매액지수	통계청	익월 27~익익월 4	월간	1.Wholesale Trade 2.Advance Retail Sales 3.Retail Sales	센서스국	익익월 7~10 익월 11~15 익익월 11~15	월간 월간 월간
					3.ICSC-UBS Store Sales Index	ICSC	매주 화요일	주간
					4.Redbook		매주 화요일	주간
	2.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산업자원부	익월 11~15	월간	5.Chain Store Sales	BTM	익월 3~9	월간
	3.자동차산업동향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익월 초	월간	6.Motor Vehicle Sales		익월 1~5	월간
9.재정	1.재정통계	재정경제부	4개월 후	월간	1.Monthly treasury statement	재무성	익월 10~15	월간
10.무역	1.국제수지	한국은행	익월27~30	월간	1.U.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센서스국 경제분석국	익익월 10~14	월간
11.경기전망	1.기업경기조사	한국은행	익월1~11	월간	1.ISM Mfg Index	ISM	익월 1~3	월간
	2.기업경기실사지수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월 6	월간	2.ISM Non-Mfg Survey	ISM	익월 3~6	월간
	3.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중소기업협동조합	금월 24~31	월간	3.NY Empire State Manufacturing Survey	FRB of New York	금월 15~17	월간
	4.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익월 3~6	월간	4.Business Outlook Survey	FRB of Philadelphia	금월 15~21	월간
	5.광고경기실사지수	한국광고주협회	금월 2~6	월간	5.Business Barometer	ISM-Chicago	금월 27~31	월간
	6.정보통신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금월 20	월간				

정부기관 중 대표적인 통계작성기관인 상무성[3] 센서스국과 경제분석국 및 노동성[4] 등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Bloomberg[5], CNN[6] 등 언론기관 web site의 Economic Calendar 그리고 Norman Frumkin의 「Guide to Economic Indicators[7](3판)」 등을 이용하였다[8].

3) 상무성 센서스국은 발표주기가 월간단위 이하인 9개의 경제지표를 작성중이며, 경제국은 2개의 경제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4) 노동성 노동통계국은 발표주기가 월간단위 이하인 5개의 경제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5) Bloomberg web site는 발표주기가 월간단위 이하인 경제지표 44개에 대한 월별 발표일정과 각 지표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수록하고 있다.

6) CNN, Yahoo, CBS 등 여러 web site에 Economic Calendar를 제공하는 Briefing.com에는 발표주기가 월간이하인 경제지표 30개에 대한 월별 발표일정과 각 지표들의 발표내용을 그래프와 함께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7) 51개 경제지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중 공표주기가 월간단위 이하인 경제지표가 34개이다.

8) 그 밖에 미국의 경제지표를 찾는데 유용한 web site로 Economic-Indicators.Com이 있는데 39개의 경제지표 및 경제분석 보고서의 각 site와 연결되어 있다.

제 3장 한국과 미국의 속보성 경제지표 비교

제 1절 경제부문별 지표종류 및 발표시점

한국과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의 종류와 발표주기 및 시점을 11개 각 경제부문별로 각각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 아직 작성되지 않는 통계와 또한 미국이 실제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달내내 끊임없이 경제지표들을 발표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미국의 각 경제 분야별 경제지표를 비교해보면, 다른 경제부문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월간단위의 경제지표들이 작성되고 있지만, 『소득 및 소비부문』만 월간단위로 작성되는 경제지표가 없다. 또한 각 경제부문별로 작성되는 경제지표의 종류를 분석해보면 고용과 도소매업 관련 통계들에 대해 미국은 민간단체에서 주간단위나 익월 초에 발표하는 통계들이 있어 신속하게 경제동향의 추세를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정부기관에서 작성한 통계를 발표할 때까지 자동차산업을 제외하고는 경제동향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발표되는 통계들이 없다.

각 경제지표들의 발표시점을 비교해 보면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국제수지 만 우리나라 통계들이 미국에 비해 빨리 작성될 뿐 다른 통계들은 발표시점이 비슷하거나 늦다. 특히 경기판단에 민감한 제조업 및 비제조업 지표의 경우, 미국은 속보성을 강조하여 제조업 출하 및 수주통계는 내구재에 대해서만「Advance report」를 발표한 후 1주일 후에 다시 재고와 비내구재를 포함하여 통계를 발표하며, 소매판매통계는「Advance report」를 발표한 후 1개월 후에 해당 통계를 재발표한다.

미국의 발표시스템에 대해 우리나라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다른 점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우리나라처럼 모두 가공하여 한 번에 발표하지 않고 다양한 통계를 만들어 여러 제목으로 여러

번에 걸쳐 발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달내내 경제지표가 발표되며 우리나라보다 많은 통계들이 작성되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고용통계는 미국 BLS가「The Current Population Survey」와「The Current Employment Statistics Survey」결과를 이용하여 2번 보도자료를 작성 발표한다. 부동산통계는 센서스국이「Survey of Construction」결과를 이용하여 2번 보도자료를 작성 발표하고, 제조업동향은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3번 보도자료를 작성 발표한다. 우리나라도 조사결과를 다양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개선하고 속보성 있는 경제지표로써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먼저 집계 발표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 2절 경제지표의 접근 용이성 비교

경제지표를 작성해도 이용자가 이용하기 불편한 형식으로 제공되거나 일부 회원들에게만 제공되는 등의 폐쇄성을 보인다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해당 경제지표가 작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마치 해당 경제지표들이 작성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낮은 이용 빈도로 통계의 유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지표의 접근 용이성이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서 언론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지표가 부족하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국과 미국의 경제지표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방법으로 한국과 미국의 각 경제지표에 대해 발표시점의 사전공표, 보도자료 발간,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공개정도, 시계열자료 이용가능성, 통계작성방법 공개 등 5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각 경제지표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 용이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미국은 5개 분석대상 항목이 통계전문 정부기관뿐 만 아니라 민간기관들에서도 대부분 지켜지고 있었다. 본 연구도 모두 인터넷에서 수집한 자료들에 의해 작성되고 있는 것처럼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쉬우나 우리나라는 통계청과 한국은행만이 발표시점 사전공표제도를 실시하고 있을 뿐 다른 기

관들은 이런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의 보도자료들은 민간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에도 대부분 다음 달 발표시점에 대한 안내문이 수록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통계청 발표 보도자료에만 연간 보도예정표가 수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농촌물가와 고용보험통계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지 않으며, 건설교통부의 주택건설실적통계와 미분양주택현황보고는 보도자료의 작성에 지속성이 없다. 시계열자료의 이용측면도 점검해보면 우리나라의 통계청, 한국은행, 노동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만이 통계DB를 운영하고 있어 시계열자료를 쉽게 수집할 수 있지만, 대부분 통계작성기관들은 매월 통계를 excel 파일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때문에 시계열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excel 파일을 down받아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며 시계열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기관도 있다. 반면 미국은 조사표, 조사 및 통계작성방법, 사용된 계절인자 등에 대한 자세한 방법들을 인터넷에서 수집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통계청만이 간략한 작성방법과 용어설명을 홈페이지에서 수집할 수 있을 뿐 다른 기관들에서는 통계청 수준의 작성방법에 대한 자료도 수집할 수 없다.

경제지표의 접근 용이성에 대한 분석결과, 통계청이 향후 해야 할 과제는 각 통계작성기관들이 web site에 DB를 구축하여 이용자들이 시계열자료와 작성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web site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인프라구축을 지원해야 되며, 또한 작성된 통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에게 관련 통계가 작성되고 있음을 알려 통계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용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야 한다.

<표2> 한국과 미국의 경제지표 접근 용이성 비교

한국						미국					
통계명	발표시점 사전공표	보도자료 발간	홈페이지운영			통계명	발표시점 사전공표	보도자료 발간	홈페이지운영		
			공개정도	시계열 자료	작성방법				공개정도	시계열 자료	작성방법
1.소비자물가	○	○	○	○	○	1.Consumer Price Index	○	○	○	○	○
2.생산자물가	○	○	○	○	×	2.Producer Price Indexes	○	○	○	○	○
3.수출입물가	△	○	○	○	×	3.U.S. Import and Export Price Indexes	○	○	○	○	○
4.농가판매가격지수 농가구입가격지수	×	×	×	△	○	4.Agricultural Price	○	○	○	○	△
5.경제활동인구	○	○	○	○	○	5.The Employment Situation	○	○	○	○	○
6.매월노동통계	×	○	○	○	○	6.Real Earning	○	○	○	○	○
						7.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	○	○	○	○
7.고용보험	×	×	×	△	×	8.Jobless Claims	○	○	○	○	
						9.Mass Layoffs	△	○	○	○	○
						10.Challenger Job-Cut Report	○				
						11.Help Wanted Index	○	○	△	×	△
						12.Personal Income and Outlays	○	○	○	○	△
8.소비자전망조사	○	○	○	○	○	13.Consumer Confidence	○	○	△	×	○
9.소비자동향조사	△	○	○	○	○						
10.소비자태도조사	×	○	○	△	×	14.Consumer Sentiment	○	○	○	○	○
11.건설기성액	○	○	○	○	○	15.Value of Construction Put in Place	○	○	○	○	○
12.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	○	○	△	×	16.New Residential Construction (Housing Permits, Building Starts and Housing Completions)	○	○	○	○	○
13.주택건설 실적통계	×	△	△	△	×						
14.미분양주택 현황 보고	×	△	△	△	×	17.New Residential Sales(New One-Family Houses Sold and For Sale)	○	○	○	○	○
15.주택가격동향	×	○	○	△	○						
16.주간아파트 가격동향	×	○	○	△	○	18.Existing Home Sales	○	○	○	×	○

한국						미국					
통계명	발표시점 사전공표	보도자료 발간	홈페이지운영			통계명	발표시점 사전공표	보도자료 발간	홈페이지운영		
			공개정도	시계열 자료	작성방법				공개정도	시계열 자료	작성방법
						19.MBA Purchase Application	○	○	○	×	○
17.경기종합지수	○	○	○	○	○	20.Leading Indicators	○	○	△	×	△
18.산업생산지수	○	○	○	○	○	21.Industrial Production and Capacity Utilization	○	○	○	○	○
19.제조업가동률지수	○	○	○	○	○						
20.생산자출하지수	○	○	○	○	○	22.Advance Report on Durable Goods Manufactures' Shipments and Orders	○	○	○	○	○
21.생산자제품재고지수	○	○	○	○	○						
22.기계수주액	○	○	○	○	○						
						23.Manufacturer's Shipment, Inventories and Orders	○	○	○	○	○
						24.Manufacturing and Trade: Inventories and Sales	○	○	○	○	○
23.도소매판매액지수	○	○	○	○	○	25.Wholesale Trade	○	○	○	○	○
						26.Advance Retail Sales	○	○	○	○	○
						27.Retail Sales	○			○	○
						28.ICSC-UBS Store Sales Index	○	○	×	×	△
						29.Redbook	○				
24.주요유통업체매출동향	△	○	○	×	×	30.Chain Store Sales	○	○	○	○	×
25.자동차산업동향	×	○	×	×	×	31.Motor Vehicle Sales					
26.재정통계	×	×	×	○	×	32.Monthly treasury statement	○	○	○	○	△
27.국제수지	○	○	○	○	×	33.U.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	○	○	○	○

한국						미국					
통계명	발표시점 사전 공표	보도자료 발간	홈페이지운영			통계명	발표시점 사전 공표	보도자료 발간	홈페이지운영		
			공개정도	시계열 자료	작성방법				공개정도	시계열 자료	작성방법
28.기업경기조사	○	○	○	○	△	34.ISM Mfg Index	○	○	○	○	○
29.기업경기실사지수	×	○	○	×	×	35.ISM Non-Mfg Survey	○	○	○	○	○
30.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	○	○	○	△	36.NY Empire State Manufacturing Survey	○	○	○	○	○
31.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	×	○	○	×	×	37.Business Outlook Survey	○	○	○	○	○
32.광고경기실사지수	×	○	○	×	△	38.Business Barometer	○	○	○		×
33.정보통신산업기업경기실사지수	×	○	△	×	△						

주) ○ : 각 평가항목에 만족

△ : 각 평가항목에 일부만 만족

× : 각 평가항목에 전혀 만족하지 못함

제 4장 주요 경제지표별 작성방법 비교

경제지표가 작성되어도 작성된 경제지표는 경제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작성대상범위, 작성방법, 발표항목 등의 질적 수준이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각 경제지표가 미국의 경제지표와 포괄범위, 발표항목 등에서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고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고찰해 본다.

제 1절 물가

미국은 노동성 BLS에서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수출입물가를 작성하고 농가판매 및 구입물가지수는 농무성에서 작성 발표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는 통계청, 생산자물가와 수출입물가는 한국은행, 농가판매 및 구입물가지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작성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해 보면 자가주거비지수, 연쇄지수 작성 등 발표 자료의 종류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단지 지수작성과정의 정교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 품목단계지수 작성에 있어 미국은 기하평균산식을 사용하고 있다. 기하평균을 사용하는 이유는 소비자물가와 생계비지수 사이의 차이점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미국뿐 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품목지수 계산에 기하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우리나라도 향후 지수개편작업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출입물가지수를 비교해보면 양국의 발표 자료들이 유사한데 다만 미국은 한국에서 작성하지 않는 수입원산지별 수입물가지수와 서비스수출입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서비스수출입물가지수는 항공 화물운임과 여객운임을 이용하여 분기별로 작성 발표한다. 서비스부문에 대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서비스에 대한 수출입물가지수의 작성 시도는 커다란 유용성을 줄 것으로 보인다.

농가 판매 및 구입가격지수는 농가교역조건[9]을 산출하는데 주로 이용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농가판매가격지수 작성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농가구입가격지수의 포괄범위에서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가계용품, 농업용품, 임금과 농기계임차료로 구성되어 있지만 미국은 이자와 세금이 포함된다. 즉 농가의 부동산 부채에 대한 에이커당 이자, 비부동산 부채에 대한 이자율 및 에이커당 부동산세금이 지수작성에 포함된다. 이들 항목의 포함은 농업부문의 비용범위에 대한 정의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포괄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 2절 고용 및 임금

우리나라에서는 고용 및 임금관련 통계를 통계청과 노동부 양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다. 실업통계는 통계청에서 가계부문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경제활동인구)를 이용하여 작성하며, 노동부에서는 사업체부문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노동통계조사)를 이용하여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수, 노동이동 등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노동성 BLS에서 가계(The Current Population Survey)와 사업체(The Current Employment Statistics Survey) 대상 조사를 모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도자료「The Employment Situation」을 통해 함께 발표하고 있다. 그밖에 통계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작성하는 고용보험통계가 유일하나, 미국은 고용보험통계뿐만 아니라 대량일시해고(Mass Layoff), 신문구인광고(Help-Wanted Advertising Index) 및 계획된 감원(Job-Cut)[10]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 발표한다.

미국과 한국 모두 실업률에 대한 통계는 가구부문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한국과 미국의 실업률 통계에 대한 작성방법 비

9) 농가교역조건=농가판매가격지수/농가구입가격지수

10) 계획된 감원(Job-Cut)에 대한 통계는 고용주가 감원 계획한 일자리 수에 대한 통계를 직업소개회사인 Challenger, Gray & Christmas가 매월 작성 발표하고 있는데 작성방법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상에서 찾지 못했다.

교[11]는 제외하고 발표된 내용만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실업통계가 우리나라의 실업통계보다 다양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자를 신규실업자와 전직실업자로만 구분하지만, 미국은 전직실업자를 더 세분하여 일시해고, 비일시해고(영구직장상실, 일시직장의 계약만료), 자발적 퇴직, 고용시장 재참가로 자세히 구분한 자료를 발표한다. 또한 실업기간별 통계(5주 이내, 5~14주, 15~26주, 27주 이상, 평균실업기간, 중앙(Median)실업기간), 조사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못하여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었지만 현재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 대한 통계, 2가지 이상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통계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실업률 등을 발표한다. 우리나라도 실업정책에 유용하게 실업률통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다양한 통계자료의 작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사업체 대상 고용통계를 비교해보면 미국은 비농업부문에 대한 산업별 고용자수, 평균주당근로시간, 평균 시간당 및 주당 임금, 총주당근로시간지수(2002=100), 총주당임금지불액지수(2002=100), 고용변동확산지수[12](DI)를 작성 발표한다. 한국은 노동부가 산업별 고용자수, 월평균 근로일수, 월평균근로시간수, 월평균임금액자료를 발표하는데 임금액의 경우 미국보다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구분하여 자세히 발표한다. 그러나 미국은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지수, 고용변동확산지수(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대비) 등의 다양한 통계표를 제공하며 계절조정 자료도 발표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고용자수를 제외한 모든 발표항목은 생산직이나 비감독직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있다. 이는 노동정책의 측면에서 고용주나 관리직의 자료도 포함되어 임금 등의 자료가 상향바이어스를 갖는 우리나라의 통계보다는 유용하다.

미국 BLS는「The Employment Situation」에서 주당 및 시간당 명목임

11)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이지만 미국은 16세 이상 등 정의상 서로 다른 개념들을 사용하나 이는 각국의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2) DI(Diffusion Index)는 고용이 증가한 산업 %+(고용이 불변인 산업 %)/2로 계산되며 50%는 고용이 증가한 산업과 고용이 감소한 산업이 동일함을 의미한다.

금을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도시임금근로자에 대한 소비자물자지수(CPI-W)를 이용하여 주당, 시간당 실질임금을 산업별로 계산「Real Earning」이라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발표한다. 우리나라 노동부에서는 단지 월평균 임금총액만을 소비자물자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할 뿐 산업별 실질임금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는데 이용자를 위해 미국처럼 산업별 실질임금자료까지 제시해 주어야 된다.

미국 BLS는 전국 1만 6천개 사업체를 대상으로「The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를 실시하여 발표한다. 이 조사는 고용자수(Employments), 구인자수(Job Openings), 신규채용인수(Hires), 이직자수(Separations)[13]에 대한 각 사업체의 월간 자료를 수집한다. 수집한 결과는 각 조사항목에 대한 산업별, 지역별 자료로 자세하게 작성하여 발표한다. 작성된 통계를 통해 월간 신규 채용인이 이직자수보다 많은지, 근로자의 이직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BLS는 구인률[14], 신규채용인률[15], 이직률[16]에 대한 자료도 계산하여 제공한다. 구인자에 대한 조사항목은 사업체들이 일할 노동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부의 노동통계조사에서 사업체의 구인자에 대한 항목은 조사하지 않는다. 노동통계조사에서 신규채용과 이직자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고 있으나, 이직자의 경우 퇴직과 전출로만 구분이 가능할 뿐 퇴직이 자발적이거나 정년 등에 의한 당연퇴직인지 또는 사업체에 의한 해고인지에 대해 미국과 같은 구분이 없어 미국보다 자료의 유용성이 낮다. 또한 고용관련통계는 계절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도 미국은 산업의 대분류 수준까지는 계절조정 자료를 발표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계절조정이 자료가 전혀 없다.

---

13) 이직자는 은퇴를 제외한 퇴직(Quits), 임시해고 및 완전해고(Layoffs and Discharges), 은퇴,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기타퇴직(Other)의 3가지로 하위분류 한다.

14) 구인률=구인자/(고용자+구인자)

15) 신규채용인률=신규채용자/고용자

16) 이직률=이직자/고용자

고용보험관련통계에 대해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면 미국은 노동성에서 매주 목요일 주간단위로 발표할 정도로 중요한 통계로 간주하며 발표하는 내용은 간단하지만 실업급여의 신규청구건수가 40만 건을 넘으면 고용의 불안을 나타내는 지표로 미국에서는 이용하고 있다. 미국의 발표항목으로는 정규 주단위(state)프로그램과 연방프로그램의 항목이 다르며 신규청구건수가 1,000명이상 증가한 주와 감소한 주(state) 및 요인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고용보험통계를 단지 고용보험관련 업무처리과정에서 수집된 단순한 자료정도로만 생각하며, 이 통계의 작성기관인 중앙고용정보원은 고용보험의 사업장과 피보험자 수에 대한 자료를 실업급여신청자에 대한 통계보다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자료의 장기시계열 입수의 어려움 등으로 외부에서도 이 통계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고용보험통계월보에 수록된 통계자료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보도 자료에 수록된 내용보다 다양한 여러 자료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들 자료중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중 자격상실의 원인별 파악을 통해 비자발적 실업의 추세, 재취업까지의 기간, 사업장들의 생성, 소멸추세 등에 대해 산업별, 학력별, 연령별, 성별, 지역별의 다양한 통계를 개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통계의 발전에 통계청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밖에 미국에서만 발표하는 고용관련 통계로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해고형태인 대량임시해고에 대해 미국의 BLS는 주정부의 실업보험 DB에서 연속 5주 동안 단일 사업장의 50명이상이 신규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경우를 대상으로 임시해고기간에 관계없이 대량임시해고건수와 신규실업급여청구자에 대한 산업별, 주(state)별 통계를 매월 발표한다. 분기별 발표자료는 각 사업체와의 접촉을 통해 임시해고기간이 31일 이상인 경우만을 재집계하여 발표한다.

신문구인광고통계(Help-Wanted Advertising Index)는 일자리에 대한 공급측면에서의 변동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The Conference Board가 51개 주요 신문의 구인광고 수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전국과 9개 지역에 대한

자료를 지수로 작성하여 발표한다. 신문구인광고통계는 우리나라에서 작성되지 않는 통계이지만 간단한 조사를 통해 고용시장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있는 통계이다.

제 3절 소득 및 소비

미국 상무성 경제분석국은 매월「Personal Income and Outlays」라는 통계를 작성 발표하고 있는데, 이 통계의 내용은 국민계정 중 소득분배계정의 개인부문에 해당하는 통계로서 개인 총소득[17], 가처분소득[18], 지출 및 저축[19]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에서 소득계정을 작성하고 있지만 연간자료만을 작성할 뿐 분기자료는 작성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행의 통계표 구성방법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경우 누구나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개인부문의 각종 소득에서 세금과 부담금을 제외하여 가처분소득을 만들고 여기에서 다시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가 저축이라는 흐름을 통해 통계표를 작성한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통계표는 사용(지출)과 원천(수입)이라는 개별 항목별 해당 통계수치를 기입하는 즉 복식부기장과 같은 통계표 형태로 작성되고 있어 처음으로 이 통계표를 접하는 이용자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이 월간단위로 개인소득에 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점은 발표된 통계자료만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정치를 만들거나 추세에 대한 판단(judgemental trend) 등을 통해서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보다 추정기법 등에 대해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과 소비는 중요한 통계로 우리나라에도 추정기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월간단위의 개인부문에 대한 소득 및 소비 통계작성이 필요하다.

---

17) 개인총소득=임금 및 급여+고용주의 사회부담금+영업잉여+재산소득+경상이전수입
임금 및 급여, 사회부담금, 영업잉여, 재산소득, 경상이전, 지출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하위분류에 대한 자료까지 발표되고 있다

18) 가처분소득=개인총소득-사회부담금-경상세

19) 저축=가처분소득-지출

제 4절 소비자전망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전망조사를 통계청(소비자전망조사), 한국은행(소비자동향조사), 삼성경제연구소(소비자태도조사)에서 하고 있는데, 통계청만이 월간단위로 작성하고 한국은행과 삼성경제연구소는 분기단위로 작성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The Conference Board에서 매월「Consumer Confidence」를 발표하며, 미시간대학에서「Consumer Sentiment」를 잠정과 확정으로 월 2회 발표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비자전망지수를 비교하면 미국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지수,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지수 및 종합지수의 형태로 작성 발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은「소비자평가지수」라는 이름으로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지수와「소비자기대지수」라는 이름으로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지수는 작성하지만 종합지수는 작성하지 않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소비자태도지수」라는 종합지수만을 작성하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지수들은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3가지의 지수 모두 작성하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의 5개 기관의 현재와 미래 경제상황 판단에 이용하는 조사항목들을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지수작성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각 기관별로 약간 다르지만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내구재소비, 미래의 경기, 생활형편, 물가, 금리, 실업 등에 대한 전망 그리고 주택, 자동차 등 내구재 구매계획 등에 대한 조사항목은 유사하다.

미국 기관들의 자료발표는 우리나라보다 이용자의 측면에서 더 유용하게 통계표를 작성 제공하고 있다. The Conference Board의 Consumer Confidence는 1985년을 기준지수로 작성되며 자동차와 주택의 경우 신규품목을 구입할 것인지 중고를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불확실한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발표한다. 여행의 경우도 국내여행을 계획하는지 해외여행을 계획하는지와 여행을 위한 교통수단도 조사하는 점이 특이하다. 미시간대학의 경

<표 3>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전망조사 비교

	통계청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TCB	미시간대학교
종합지수	————	————	소비자태도지수	Consumer Confidence Index	The Index of Consumer Sentiment
현재경제상황	소비자평가지수 -경기 -생활형편 -비교대상: 6개월 전	———— -현재경기판단CSI -현재생활형편CSI -비교대상: 6개월 전	———— -현재경기판단지수 -현재생활형편지수 (비교대상:1년 전) -내구재구입지수	Present Situation -현재경기조건 -현재고용조건	Current Index -현재재정형편 (financial) (1년 전과 비교) -내구재구매조건 (현재)
미래경제전망	소비자기대지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내구소비재구매 -외식오락문화 -비교대상: 6개월 후	———— -향후경기전망CSI -생활형편전망CSI -비교대상: 6개월 동안	———— -미래경기예상지수 -미래생활형편지수	Expectations -경기조건 -고용조건 -총가구소득 -비교대상: 6개월 후	Expected Index -재정형편변화기대(향후1년) -기대경기조건 (향후1년) -기대경기조건 (향후5년)
부가조사	-현재 자산평가 (6개월 전) -현재 저축과 부채(6개월 전) -현재 가계수입 평가(1년 전) ※미발표조사항목 -내구재구입예정시기 -취업전망 (6개 월후) -물가전망 (6개월후)	-가계수입전망CSI (향후 1년) -소비지출전망CSI -물가수준전망CSI -금리수준전망CSI -고용사정전망CSI (향후 6개월동안) -6개월이내 부동산 구매계획 -6개월이내 승용차 구매계획	-소비지출지수 -가계부채지수 -물가예상지수 (1년 전) -미래소비지출지수 -교육문화비지출예상지수 -교통통신비지출예상지수 -주거비지출예상지수 -식료품비지출예상지수 -의류비지출예상지수 -기타지출예상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1년 후) -내구재구입태도지수 -주택구입태도지수	-금리전망 -평균물가상승률 전망 -주식가격전망 (향후 12개월) -주요내구재구매계획 -여행계획 (향후 6개월이내) ※주요내구재 -자동차 -주택 -냉장고 -세탁기 -TV -진공청소기 -렌지 -의류건조기 -에어컨 -카페트	-현재경기조건 (1년 전 비교) -경기조건의 최근변화에 대한 새로운 소식 -1년내 경기조건 변화기대 -정부경제정책에 대한 의견 -실업 변화기대 -금리 변화기대 -12개월 내 물가 변화기대 -실질가구소득의 변화기대 (향후1~2년) -가구소득의 변화 기대(향후 12개월 동안) -주택구입조건 -자동차구입조건

우는 5개 기관 중 가장 많은 조사항목을 조사하며 많은 질문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이유를 묻는 질문들이 조사표에서 주관식으로 직접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미시간대학이 발표하는 통계표들을 보면 재정형편 등 일부 과거와 비교한 현재와 미래 전망치를 cross table로 작성 발표함으로써 조사결과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점은 우리나라의 통계에서도 쉽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다.

제 5절 건설 및 부동산

우리나라는 통계청의 건설기성액과 건설수주액, 건설교통부의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주택건설실적통계, 미분양주택현황보고, 국민은행의 주택가격관련 통계가 건설 및 부동산관련 대표적인 경제지표이다. 미국은 센서국에서 건설기성액통계와 신규주택의 허가, 착공, 완공 및 판매에 관련된 통계를 작성하고 전국부동산협회에서 중고주택의 판매와 관련된 통계를 매월 작성하고 있다.

건설기성액이란 매월 공사의 진척정도를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건설기성액 통계는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투자 현황파악에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통계이다. 우리나라의 건설기성액 통계와 미국의 건설기성액 통계인 「Value of Construction Put in Place」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연간기성순위 상위 건설회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 건설회사에서 매월 기성액 자료를 수집하여 집계·발표하는데 반하여 미국은 표본조사와 추정을 병행한다. 즉 단독주택을 제외한 건설기성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전수추정하고, 단독주택은 신규 인허가자료와 공사시작 월에 따른 각 공사기간별 진척표를 월별 단위로 만들어 단독주택에 대한 건설기성액을 추계하는 등 우리나라의 건설기성액 통계보다 대표도가 높다. 또한 발표한 통계표를 보면 미국은 발주자와 공사종류가 cross table로 작성되어 각각 별개로 발표되는 우리나라에 비해 이용자의 유용성을 높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축 허가, 착공 등에 대한 통계를 미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건설교통부 건축과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월 건축물의 인허가 및 착공자료를 수집하여 면적과 동수 단위로 건축물의 용도별, 구조별 자료를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라는 명칭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기관의 주거환경과에서는 자신들이 사업승인 한 공동주택의 자료와 건축과의 단독, 다가구 등 주택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호수단위로 주택건설실적통계라는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동일기관에서 동일 대상의 건축물을 동수와 호수라는 단위로 발표하여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건축면적 단위의 통계발표가 호수단위 주택이나 층수단위의 상업용 건물의 통계작성보다는 유용성이 낮으므로 집계단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단지 허가와 착공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지만 미국은「Survey of Construction」을 통해 조사된 자료를 대상으로 주거용만으로 제한되지만 각 주택의 허가, 착공, 허가받았으나 미착공, 공사 진행 및 완성의 각 단계별 호수(Unit)단위의 통계를 단독용, 2~4가구용, 5가구이상용으로 구분 작성 발표한다. 허가는 허가가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만 통계를 작성하지만 착공과 그 밖의 항목에는 허가가 필요 없는 주택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여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건축중 판매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건축된 신규단독주택에 대해서「Survey of Construction」을 통해 조사기간 동안 판매된 주택수, 조사기간 마지막 시점에 판매용 주택수, 월간공급[20], 판매가격 중앙치, 평균판매가격, 판매가격별 판매된 주택수, 건축단계별(미착공, 진행중, 완공) 판매된 주택과 판매용 주택, 완성이후 판매까지 평균소요 개월의 중앙치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대표적인 주거형태가 단독주택이지만 우리나라는 아파트이다. 따라서 건설교통부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월 미분양주택수를 발표하는 것은 미국의 신규단독주택에 대한 통계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이 자료는 미국의 발표항목 중 단지 판매용주택에 해당되는 미분양주택수(완공 후 미분양자료도 발표)만을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통계자료에 비해 조사항

20) 월간공급=판매용 주택수/판매된 주택수

목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으며 신규분양 아파트 호수 등 집계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면 미국과 같은 다양한 통계항목을 이용자가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중고주택의 매매 호수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매월 전국부동산중개협회에서 중고단독주택의 판매호수와 판매가격의 중앙치 및 평균가격을 발표한다. 우리나라도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의 주택거래와 관련된 세금징수건수 자료를 이용한다면 주택의 판매현황에 대한 좋은 통계자료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이런 통계의 작성에 대한 시도가 필요하다. 주택가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은행을 비롯한 여러 부동산관련 업체들이 아파트 가격과 관련된 자료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들 자료는 미국처럼 가격현황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가격의 변동에 따른 증감률이나 지수의 형태로 발표하고 있어 가격의 수준 파악이 어렵고 동일 대상에 대해서도 관련업체마다 가격차이가 커서 가격표 자체의 신뢰도가 아직은 낮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을 단지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나라경제에 악효과만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는 이상으로 나라경제에 미치는 순효과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신규 아파트단지의 건설은 건설과정에서 많은 고용을 창출하며 특히 일용근로자의 고용효과가 매우 크며 아파트의 신규입주는 가전, 가구, 인테리어, 운반 등 여러 분야에 파급효과를 미친다. 이 처럼 중요한 분야에 대해 우리나라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지 행정자료의 수집을 통해 일부 항목에 대한 자료만을 발표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단위로 발표하고 있어 부동산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할 수가 없다.따라서 우리나라도 부동산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작성을 위해 행정자료를 검토하여 이용 가능한 항목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부족한 항목에 대해서는 조사통계의 신규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 6절 경기종합지수

현재(미래)의 경제상황을 판단(예측)하기 위해서 현재(미래) 경제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경제지표들을 선정하여 지수 형태로 작성한 경기종합지수를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만 작성 발표하고 있지만, 미국[21]은 TCB(The Conference Board)와 ECRI (Economic Cycle Research Institute)에서 작성하고 있다. TCB의 경우 상무성으로부터 1995년 말부터 미국의 경기지수 작성업무를 공식적으로 인수받아 작성하는 기관이고, ECRI는 경기관련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영리기관으로 회원들은 대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다.

통계청은 단지 우리나라의 선행, 동행, 후행 경기종합지수만을 작성하지만 TCB는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프랑스, 일본, 한국, 멕시코, 스페인, 영국의 경기종합지수도 작성하고 있다. ECRI[22]는 <표4>와 같이 미국 전체 경기관련 선행과 동행지수를 포함해서 15가지 종류의 동행과 선행지수를 작성하여 매월「U.S. CYCLICAL OUTLOOK」이라는 간행물을 발간한다. 또한 <표5>와 같이 미국, 한국, 영국 등 18개국과 이들 국가들을 결합한 지역의 동행지수 및 장기선행지수를 작성하여 매월「INTERNATIONAL CYCLICAL OUTLOOK」이라는 간행물을 발간한다. 그밖에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미국, 영국, 독일의 Future Inflation Gauge에 대한 자료를 「INFLATION WATCH」라는 간단한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23]. ECRI가 이와 같이 여러 종류의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경제지표들이 미국에서는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경제지표들의 종류가 부족하지만 ECRI와 같은 다양한 경기관련 지수들의 작성을 시도한다면 그 과정에서 부족한 새로운 경제지표가 개발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ECRI의 경기관련 지수중 가장 특이한 것은 단기와 장기로 구

21) 미국에는 TCB와 ECRI 이외에 FIBER(Foundation for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 Research)에서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였으나 현재는 활동이 중단되었다.

22) ECRI에서는 Composite Index를 Gauge라고 부른다.

23) 한국과 일본의 Future Inflation Gauge를 작성하지만 발표하지는 않는다.

분하여 2가지 종류의 선행지수를 작성하는데 경제정책 입안에 매우 유용한 지표이다.

<표4> ECRI 발표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종류

동행지수	선행지수
· Coincident Index	· Long Leading Index · Short Leading Index
· Coincident Employment Index	· Leading Employment Index
· Coincident Manufacturing Index	· Leading Manufacturing Index
· Coincident Services Index Coincident Financial Services Index	· Leading Services Index Leading Financial Services Index
· Coincident Construction Index	· Leading Construction Index
	· Leading Trade balance Index · Leading Imports Index · Leading Exports Index · Future Inflation Gauge

3개 기관의 작성방법을 비교해 보면 경기종합지수 작성 각 단계별로 작성방법이 동일한 단계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지만 경제상황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각 방법 중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방법은 없다. 통계청과 TCB, ECRI 모두 우리나라의 선행지수와 동행지수를 작성하는데 이들 기관이 사용하는 경제지표들에는 <표6>과 같이 차이가 있다. 동행지수의 경우 통계청은 투자(건설기성액)와 무역부문(수출액, 수입액)을 반영하고 있지만, TCB와 ECRI는 이들 부문을 반영하지 않고 생산, 판매, 고용 및 소득(ECRI만 반영) 부문만으로 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선행지수는 통계청과 TCB가 금융, 고용, 생산, 투자, 무역부문으로 선행지수를 작성하는데 반해서 ECRI는 서비스소비자물가, 소비자태도지수, 노동생산성 등 다른 부문의 경제지표들을 이용하여 선행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통계청과 TCB의 미국 경기지수를 비교해보면 선행지수와 동행지수에서 한국은 투자와 무역부문이 반영되지만, 미국은 선행지수에서는 제조업의 수주를 반영하고 동행지수는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 후행지수에서 한국은 소비를 반영하지만 미국은 부채를 반영하고 있다.

<표5> ECRI가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는 국가

지역 Gauge	국가 Gauge
· 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
· EUROPE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 ASIA-PACIFIC	일본, 한국, 호주, 대만, 뉴질랜드, 인도
· 기타	남아프리카

제 7절 제조업동향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조업동향 관련 통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산업생산, 출하, 재고, 기계수주, 생산능력 및 가동률에 대해 통계청이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직접 통계를 작성하지만, 미국은 센서스국이 출하, 재고 및 기계수주에 대해서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생산, 생산능력 및 가동률에 대한 통계는 FRB가 다른 기관의 생산관련 자료와 전력, 노동시간 등의 자료를 이용한 추계작업을 통해 작성하고 있다.

출하와 재고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은 금액단위 조사를 실시하지만 대개 물량단위로 조사한 자료를 지수의 형태로 발표하는데 비해서, 미국은 금액단위로 조사를 실시하여 금액단위로 통계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또한 출하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는 사업체의 울타리 밖으로 나간 제품에 대해서는 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체의 재고에 포함되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는 사업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판매대리점에 있는 재고도 사업체의 재고로 간주한다. 이는 우리의 출하개념보다 현실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우리의 출하와 재고에 대한 개념을 재검토해야 된다. 재고의 대상도 미국과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생산된 완제품에 대한 재고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하지만 미국은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재료와 재공품도 재고의 대상으로 조사하여 총재고액

<표6> 각 기관별 경기종합지수 작성에 사용하는 경제지표

	한국			미국
	통계청	TCB	ECRI	TCB
선행	· 종합주가지수 · 입이직자비율 · 재고순환지표 · 기업경기실사 · 설비투자추계 · 건축허가면적 · 자본재수입액 · 총유동성 · 순상품교역조건	· 주가 · 노동시간 · 기계수주액 · 신용장내도액 · 재고대비 출하 · 건축허가면적 · 수출 · 정부공채수익률	· 통화량(M2) · 3년만기회사채 수익률(역계열) · 서비스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태도지수 · 주거용건축허가면적 · 물가·단위노동비율(제조업) · 노동생산성(제조업)	· 제조업평균주당노동시간 · 평균주당실업보험 신규청구건수 · 제조업신규수주 (소비재 및 원료) · 판매(느린배달의 DI지수) · 제조업신규수주(비국방자본재) · 건축허가(신규개인주택) · 주가 · 화폐공급(M2) · 이자율spread(10년만기재무성채권-연방기금) · 소비자기대
동행	· 비농가취업자수 · 산업생산 · 제조업가동률 · 도소매판매 · 건설기성액 · 수출액 · 수입액	· 산업생산 · 도소매판매 · 고용 · 실업률	· GDP · 산업생산지수 · 총취업자수 · 실업률(역계열) · 월급여(제조업) · 도소매판매	· 비농업취업자 · 개인소득-이전지불 · 산업생산 · 제조업,도소매판매
후행	· 이직자수 · 사용근로자수 · 생산자제품재고 · 도시가계소비지출 · 소비재수입액 · 회사채유통수익률			· 실업의 평균기간 · 제조업,도소매판매대비 재고비율 · 생산단위당 노동비용변동 · 은행 평균prime율 · 상업 및 산업 대부부채 · 개인소득대비소비자할부신용부채 · 서비스소비자물가변동

에 포함 발표하며 3가지 각각에 대해서도 산업별 재고액을 발표하고 있다. 수주통계는 미국의 경우 신규수주액과 수주잔고액을 발표하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수주액과 잔고액을 조사하지만 현재 수주액만을 발표하고 있다.

출하, 재고, 수주통계의 조사대상범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국방부문이 제외되고 있지만 미국은 국방부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본재산업에 대해 국방부문과 비국방부문에 대한 통계자료도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전체적인 자료를 발표하기 1주일 전에 속보의 의미로 내구재에 대해서만 미리 자료를 발표한다.

미국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도매와 소매단계에서도 재고액을 조사하며 이들 각기 다른 조사로부터의 재고액을 하나의 재고관련 통계로 묶어 제조업과 도매, 소매의 각 산업단계별 재고통계표를 작성하여「Manufacturing and Trade Inventories and Sales」를 보도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에는 각 산업의 재고/판매의 비율에 대한 계산 자료도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제조업체의 재고에 대한 통계만 지수의 형태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계정에서 재고투자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재고통계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점으로 우리나라도 유통재고의 개발 및 기존 재고통계의 개념 재정립 등의 과제가 있다.

생산통계의 경우 우리나라는 출하나 재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된 물량으로 생산지수를 작성하여 이 지수의 추세를 분석하지만, 미국의 경우 FRB는 각 district별 FRB가 조사하는 전력사용량 조사이외 직접 조사하는 통계는 없으며, 특정 월에 대한 자료는 4개월에 걸친 수정과정을 통해 확정되는데 각 달의 생산지수작성에 있어 이용되는 자료의 형태는 다음과 <표 7>와 같다. 즉 물량단위 분기통계나 월간통계의 이용은 첫 번째 잠정치로부터 4번째 확정치에 이르기까지 단지 24%에서 46%로 증가할 뿐이고 전력과 노동시간을 이용한 추정치가 생산지수 작성의 50%를 차지한다.

발표되는 통계의 종류는 우리나라와 산업별, 재별지수 등 거의 유사하지만 1개월, 3개월, 6개월전과 비교한 산업생산의 DI(확산지수)와 최종재 및 비산업제품(nonindustrial supplies)에 대한 총가치를 금액으로 발표하는 등 미국이 우리보다 다양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능력지수와 가동률 및 가동률지수를 작성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들 자료도 추정기법을 이용하여 매월 작성하고 있다.

<표 7> 월별 생산지수작성에 이용되는 자료 형태

(단위: %)[24]

자료형태	첫 번째 잠정치	두 번째 잠정치	세 번째 잠정치	확정치
물량단위 자료	24	34	46	46
생산노동자 노동시간	31	31	31	31
전력사용	0	19	19	19
추정자료	45	16	5	4

제 8절 비제조업동향

우리나라와 미국의 비제조업동향관련 통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소매판매액지수와 산업자원부의 주요유통업체매출동향 통계가 발표되고 있으나, 미국은 센서스국에서 발표하는 도매와 소매 판매통계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에서 주간 또는 월간단위로 발표하는 통계자료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도소매판매액지수를 매월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도매업소와 소매업소의 판매액을 조사하여 지수로 작성 발표하는데 경상판매액지수와 불변판매액지수 및 계절조정판매액지수의 3가지 종류 지수를 작성한다. 그러나 미국은 도매업과 소매업의 통계가 별도로 작성 각각 발표되고 있는

24) 2002년 부가가치 기준

데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도매업과 소매업의 판매액뿐만 아니라 월말 재고액에 대한 통계도 발표하고 있다. 도매업의 경우 간단히 내구재와 비내구재의 대분류 하에 상품별 매월 판매액과 재고액 및 재고/판매비율을 발표한다. 소매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산업분류상 소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나 미국은 소매업과 음식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하여 소비지출에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외식지출에 대한 추이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자료가 우리나라보다 소비지출 추이를 분석하는데 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소매판매액자료는 먼저 총 추정 판매액의 65%에 해당하는 5,0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이용하여 Advance report를 발표하는데 이때는 판매액 추정치 자료만을 발표한다. 그리고 1개월 후 익익월의 소매업과 음식서비스업에 대한 판매액자료와 소매업에 대한 재고액 자료가 발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 이외에 산업자원부에서 매월 주요유통업체매출동향 통계를 작성 발표하는데 백화점 3개사와 할인점 3개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백화점과 할인점 각각에 대해 전월 판매실적 증감률을 상품군별로 작성 발표하며 구매객수와 구매단가에 대한 증감률도 발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빨리 익월 초에 Bank of Tokyo-Mitsubishi, Ltd에서 「Monthly Chain Store Sales」를 발표하는데 백화점, 체인점, 할인점, 의류매장의 판매량 자료를 수집하여 증감률 자료로 발표한다. 그밖에 미국에는 주간 단위로 ICSC(쇼핑센타국제협의회)의 「ICSC-UBS Weekly U.S. Retail Chain Store Sales Index」와, ICSC-UBS Index보다는 덜 일괄성 있는 지표로 평가되지만 체인스토아, 할인점 및 백화점의 판매에 대한 보고서인 「Redbook」이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백화점, 할인점 등 대량 판매점들의 관련 협회들이 통계작성 기능을 갖고 전월의 판매동향 등에 대한 자료를 신속하게 집계 발표하여 전월 에 대한 추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통계청의 업무부담도 줄이면서 이용자들의 요구에도 부응하므로 이들 기관들과의 협력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 9절 재정

미국은 재무성에서 정부의 수입과 지출현황을 매월「Monthly Treasury Statement」로 발표하고, 우리나라도「통합재정수지」라는 통계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가 국가재정정보시스템(http://nafis.mofe.go.kr)에 발표하고 있다. 두 기관의 발표내용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행정, 입법, 사법기관의 국 단위 부서까지의 세출과 국가수입원을 월간 단위로 익월 10~15일 사이에 발표하지만, 우리나라는 총수입(경상수입, 자본수입)과 총지출(경상지출, 자본지출) 및 순융자 항목만 발표하며 그 발표시점도 4개월 정도 늦다.

재정통계는 가장 세부적인 항목의 집계가 가능하고 정확한 자료로 그 유용성이 매우 커 재정의 수입과 지출방향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다면 국민계정의 많은 부분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계정의 작성주기도 매우 빨라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통계의 신속한 작성과 세부항목에 대한 발표가 추가되어야 한다.

제10절 무역

우리나라는 익월 1~2일이면 산업자원부에서 수출입실적에 대한 잠정자료를 빠르게 발표하지만 이는 단지 상품에 대한 자료만을 발표하며, 더욱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를 포함한 무역수지는 한국은행이 익월 말경 발표하는 국제수지 통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상무성 센서스국(상품수출입)과 경제분석국(서비스수출입)이 합동으로 매월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 자료를 발표하고, 국제수지는 분기별로 경제분석국에서 발표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수지에 대한 발표자료를 보면 한국과 달리 계절조정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계절조정하지 않은 자료는 단지 첨부만 되어 있다. 또한 3개월 이동평균치 자료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무역통계가 계절요인이나 조업일수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별 자료를

보면 년초에 비해 항상 년말의 무역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무역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무역실적에 대한 빠른 통계도 필요하지만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변동을 무역실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계절조정을 해야 된다.

제11절 경기전망

우리나라에서는 경기전망과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분기별 자료까지 고려할 때 18종류가 있으나, 발표 주기가 월단위인 자료는 6개 있다. 미국에는 경기전망 관련하여 발표되는 자료의 총 갯수는 알 수 없지만 각 경제 web-site에서 자주 인용되는 경기전망 자료는 5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기전망관련 자료 중 대표적인 것은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조사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대해 전월의 동향과 금월에 대한 전망 자료를 발표한다. 발표항목도 제품재고, 생산설비, 설비투자실행, 고용, 신규수주, 생산, 가동률, 매출(내수, 수출), 제품판매가격, 원자재구입가격, 채산성, 자금사정, 경기, 경영애로사항의 14개 항목으로 경제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기전망조사 중 흥미로운 조사로 광고경기실사지수가 있다. 이는 한국광고주협회에서 전년도 4대 매체 기준 상위 300대 광고주를 대상으로 광고매체별 광고비 집행계획, 신제품의 런칭, 제작편수, 제작비용, 기업의 체감경기, 동업종 체감경기, 분기별 및 반기별 가용 광고비 항목을 조사하여 향후 광고시장의 경기를 전망하고 경기와 광고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밖에 경기전망 자료들은 각 작성기관의 특성에 따라 조사대상과 조사내용이 다른 경기전망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순위 6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정보통신사업체에 대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기업에 대해 금월에 대한 전망과 전월 실적을 조사, 발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경기전망 조사의 대표적인 자료로 공급관리자협회(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에서 매월 제조업[25]과 비제조업[26]에 대해 각각 전월과 비교한 경기전망보고서를 발표한다. 제조업 전망보고서는 신규수주(30%), 생산(25%), 고용(20%), 공급자 배달(15%), 재고(10%)의 비중으로 이들 각각의 DI(계절조정지수)를 가중 평균한 종합지수(PMI)와 각 조사항목의 DI를 작성 발표하며 서비스업은 종합지수는 작성하지 않고 각 조사항목의 DI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밖에 ISM의 발표나 산업생산이 예측 가능한 경기전망조사로 미국에는 필라델피아 FRB의「Business Outlook Survey」, 뉴욕 FRB의 「Empire State Manufacturing Survey」[27] 및 ISM 시카고지부의「Business Barometer」[28]가 있다.

한국의 경기전망 지표들은 각 기관의 관심에 따라 조사 대상 등이 서로 달라서 일치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이용자에게 혼란만을 일으키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ISM을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는 경기전망지표들은 조사항목이 유사하고 조사대상이 제조업으로 국한되어 유사한 결과를 얻기 때문에 산업활동 자료가 발표되기 전에 경기를 전망하는 자료로 이용된다. 즉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FRB의 경기전망 발표 자료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국의 경기전망조사도 통계로서의 역할을 위해 계절조정 등 통계기법을 더욱 활용하고, 여러 종류의 경기조사로 인한 이용자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통계청은 각 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경기조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한 조사는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25) 제조업 조사항목: 신규수주, 생산, 고용, 공급업자의 배달 속도, 재고, 소비자의 재고, 지불한 가격, 수주잔고, 신규수출수주, 수입원료

26) 서비스업 조사항목: 경기활동정도, 신규수주, 고용, 공급업자 배달 속도, 재고, 재고수준에 대한 느낌, 지불가격, 수주잔고, 신규수출수주, 수입원료

27) 「Business Outlook Survey」와「Empire State Manufacturing Survey」는 각 해당 지역의 제조업 CEO들을 대상으로 현재와 6개월 후의 일반적인 경기조건, 신규수주, 출하, 수주잔고, 배달기간, 재고, 지불한 가격, 받은 가격, 고용인수, 고용인의 주당평균노동일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DI 지수로 발표한다

28) 「Business Barometer」는 생산, 신규수주, 수주잔고, 재고, 고용, 공급업자의 배달 속도, 지불한 가격, 생산원료와 자본장비 등에 대한 구입정책기간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수로 발표한다.

제 5장 결론 및 향후과제

경제부문별 경제지표의 종류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한 결과 미국에 비해 월간단위의 경제지표가 작성되지 않는 경제부문은『소득 및 소비』부문이다. 소득 및 소비부문 통계는 향후 연간단위로 작성되는 기존 통계의 작성주기를 단축하거나 신규통계의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경제지표의 발표시점을 비교해보면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국제수지만 우리나라의 발표시점이 미국에 비해 빠르고 기타 통계들은 비슷하거나 늦다. 미국은 전체 조사대상중 일부만을 조사하여 추세파악이 가능하도록 통계를 작성하며, 조사내용을 우리나라처럼 모두 가공하여 1번에 발표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주요한 사항부터 발표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빨리 경제동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통계청만이 신속하게 통계를 작성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각 관련단체들이 스스로 회원사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관련 경제부문의 경제동향 추세에 대한 통계를 익월 초에 작성하도록 유도하며 최종적으로 통계청이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 관련단체들이 모두 포함되는 형태의 통계를 발표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갖추어야 할 제도이며 통계청이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지표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터넷에서 보도자료, 시계열자료, 작성방법 등 관련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은 통계관련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이 발표하는 통계에 대해서도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대부분 얻을 수 있을 만큼 공개되는 정보가 다양해서 이용자가 통계자료를 이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당한 통계자료가 없다는 잘못된 오해를 가질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작성하는 통계에 대해 보도자료를 발표조차하지 않는 기관들도 있으며, 통계DB가 구축된 기관은 통계청, 한국은행, 노동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밖에 없다. 통계청은 각 통계작성을 하는 기관들이 보도 자

료를 작성하고 시계열자료를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기본시설을 구축할 수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면 보도시점 사전 공표제도도 각 기관이 실시하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각 기관이 발표하는 통계자료들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발표단위가 다른 통계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출하, 재고, 도소매판액 등이 지수단위로 발표하나 미국은 금액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주택관련 통계는 우리나라는 면적, 동수, 호수 등 각 통계별로 다른 단위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은 호수단위로 일관성 있는 단위의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지수단위의 통계는 기준년도에 비해 상대적인 크기나 추세밖에는 알 수 없지만 금액단위의 통계는 그 밖에도 절대규모를 알 수 있으며 이용자의 입장에서 통계의 의미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각종 통계의 단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발표되는 통계표의 구성을 보면 우리나라는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한 기본통계 외에 특수 분류 지수들이 미국에 비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통계표들이 더욱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으며 cross table 형태로 작성되는 통계표들이 많아 이용자의 유용성을 높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미국에 비해 다양하고 세분된 표들의 작성에 소극적이다. 최근 조사환경이 어려우며 대부분 기관들의 자료가 전산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이미 작성되고 있는 통계표들의 효용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통계표를 재설계하거나 조사표를 재검토 해야 한다.

신규 개발이 필요한 통계로는 유통재고 통계가 대표적이다. 사업체들이 전산시스템의 도입으로 예전에 비해 재고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경기전망에서 재고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통재고에 대한 통계가 작성되고 있지 않다. 이는 재고에 대한 조사의 어려움에서 비롯되지만 각 사업체들이 재고관리를 전산화하는 요즘에도 유통재고에 대한 통계가 발표되지 못하는 점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미

국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각각의 조사에서 조사된 재고통계를 묶어 하나의 보도자료로 발표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의 재고통계 개발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각 경제부문별로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을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 경제지표가 미국에 비해 품질이 가장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택시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단지 투기대상으로만 생각할 뿐 이 부문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부동산시장 관련 다양한 경제지표의 개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야 된다.

그밖에 국방관련 산업 활동의 통계생산, 조사보다 추정기법을 이용한 통계작성, 통계자료에 대한 계절조정 등 미국 수준의 통계품질 확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더욱 유용한 통계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통계들에 대한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참 고 문 헌>

1. 건설교통부, 건축허가 및 주택통계, http://enews.moct.go.kr/
2.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http://est.kbstar.com/quics?page=A005327
3.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조사월보』
5. 산업자원부, 주요유통업체매출동향,
   http://www.mocie.go.kr/trade/new/report_list.asp
6. 삼성경제연구소, 소비자태도조사,
   http://www.seri.org/db/dbCutL.html?s_menu=0106
7.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경기실사지수,
   http://www.fki.or.kr/datareport/data.asp?code1=KNR&code2=01
8. 재정경제부, 재정통계, http://nafis.mofe.go.kr
9.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http://stat.kfsb.or.kr/menu2-3.html
10. 중앙고용정보관리소, 『고용보험통계월보』
11. 통계청, 『건설수주통계』
1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13.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14. 통계청, 『기계수주통계』
15. 통계청, 『도소매판매액지수』
16. 통계청, 『산업생산통계』
17. 통계청, 『소비자물가』
18. 통계청, 소비자전망조사,
    http://www.nso.go.kr/newnso/notice/report.html?category_id=67
1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
    http://www.cerik.re.kr/report/report_list.asp?pcls=6

20. 한국광고주협회, 광고경기실사지수,
http://www.kaa.or.kr/k/info/info_02_list.asp
21. 한국은행, 『국제수지』
22.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http://www.bok.or.kr/index.jsp
23.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http://www.bok.or.kr/index.jsp
24. 한국은행, 『월간물가』
25.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기업경기실사지수,
http://www.kait.or.kr/multiboard/board.phtml?code=bbs3
26. Bloomberg, Economic Calendar,
http://www.econoday.com/clients/basics/bloomberg/calendar/US/EN/New_York/
27. Bank of Tokyo-Mitsubishi, Ltd, 월간체인스토아판매,
http://www.btmna.com/reports/research/comment/Chain_Store_Sales.html
28. BLS, 고용, http://stats.bls.gov/ces, http://stats.bls.gov/cps
29. BLS, 구인 및 신규채용, http://stats.bls.gov/jlt
30. BLS, 대량임시해고, http://stats.bls.gov/mls
31. BLS, 생산자물가, http://stats.bls.gov/ppi
32. BLS, 소비자물가, http://stats.bls.gov/cpi
33. BLS, 수출입물가, http://stats.bls.gov/mxp
34. BLS, 실업급여, http://www.dol.gov/opa/media/press/eta/ui/current.htm
35. BLS, 실질임금, http://stats.bls.gov/ces
36. Census Bureau, 건설기성액,
http://www.census.gov/constructionspending
37. Census Bureau, 국제수지, http://www.census.gov/foreign-trade/www
38. Census Bureau, 내구재 출하, 재고, 수주, http://www.census.gov/m3
39. Census Bureau, 도매판매, http://www.census.gov/svsd/www/mwts.html
40. Census Bureau, 소매판매, http://www.census.gov/svsd/www/re0300.html
http://www.census.gov/mrts/www/ndesign.html

41. Census Bureau, 신규주택건설,
http://www.census.gov/const/www/newreconstdoc.html
42. Census Bureau, 신규주택판매,
http://www.census.gov/const/www/newressalesindex.html
43. Census Bureau, 제조업 및 도소매 재고, 출하,
http://www.census.gov/mtis/www/mtis.html
44. Census Bureau, 제조업 출하, 재고, 수주, http://www.census.gov/m3
45. ECRI, 경기종합지수, http://www.businesscycle.com/data.php
46. Federal Reserve Bank, 산업생산과 가동률,
http://www.federalereserve.gov/releases/G17
47.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ISI 제조업경기전망, ISI 비제조업경기전망, http://www.ism.ws/
48. International Council of shopping Center, 주간소매지수,
http://www.icsc.org/cgi/rsrchshow?section=st
49. Mortgage Bankers Association, 모기지신청조사,
http://www.mortgagebankers.org/news
50.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중고주택판매,
http://www.realtor.org/publicaffairsweb.nsf/pages/
51. New York FRB, 제조업경기전망,
http://www.ny.frb.org/research/regional_economy/empiresurvey_overview.html
52. Philadelphia FRB, 제조업경기전망, http://www.phil.frb.org/
53. The Conference Board, 구인광고,
http://www.conference-board.org/economics/helpwanted.cfm
54. The Conference Board, 경기종합지수
http://www.conference-board.org/economics/indicatorsLeading.cfm
55. The Conference Board, 소비자신뢰
http://www.conference-board.org/economics/consumerconfidence.cfm

56. The University of Michigan, 소비자태도,
http://www.sca.isr.umich.edu/press-release.phpi
57.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http://usda.mannlib.cornell.edu/
58. U.S. Department of Treasury, 재정통계, http://www.fms.treas.gov/